KIA '잇몸 야구' 활짝…본격 순위싸움 펼친다

타이거즈 전망대

홍원빈·성영탁 마운드 지키고
오선우·윤도현·황대인 불방망이
지난주 두산·한화에 위닝시리즈
삼성·NC 상대 승수 쌓기 나서

KIA 고종욱(57번)이 지난 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장 승부에서 끝내기 실책을 유도하는 땅볼을 기록한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마운드 전열을 가다듬은 '호랑이 군단'이 본격적인 순위 싸움을 펼친다.

KIA 타이거즈는 새로운 한 주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승수 쌓기에 나선다. 부상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고 있는 모습이다.

KIA는 지난주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4승 2패를 거뒀다. 두산전 우위는 잇고, 한화전 열세는 만회하면서 연달아 위닝시리즈를 만들었다.

3차례 연장 승부가 펼쳐지는 등 힘든 한 주였지만 KBO를 접수한 한화 코디 폰세의 10승도 저지하면서 덕아웃 분위기가 뜨겁다.

3일 두산전에 이어 8일에도 등판한 양현종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3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선발진의 흐름은 좋다.

출발이 좋지 못했던 윤영철이 6일 한화전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첫승을 기록했다. 김도현과 아담 올러는 나란히 7회를 책임지면서 선발의 힘을 보여줬다.

불펜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마무리 정해영이 8일 경기에서 10회 등판을 자처하면서 44구의 혼신을 다한 피칭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최지민도 7일 경기에서 결과적으로는 패전 투수가 됐지만 정교해진 제구로 한화를 상대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새 전력의 활약도 반갑다.

지난주 불펜에서는 홍원빈과 성영탁이 눈길을 끌었다.

3일 두산전에서 홍원빈은 7년을 기다린 데뷔전을 치르면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초구부터 150㎞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면서, KIA 불펜에 스피드를 더해줬다.

성영탁은 제구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불펜 분위기를 바꿨다.

기회가 찾아오자마자 자신의 강점을 어필한 성영탁은 이내 입지를 넓혀 '허리 싸움'의 키로 떠올랐다. 8일에도 양현종이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지만, 성영탁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2.2이닝을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끝내기 승리로 가는 발판을 놓았다.

김도영, 김선빈, 나성범이 빠진 타석에서도 기회를 얻은 선수들의 어필 무대가 이어지고 있다.

오선우는 폰세를 상대로 홈런포를 기록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타격으로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지난주 김호령의 3안타, 황대인의 638일 만의 홈런도 나왔다. 3일 두산전 멀티히트 이후 4경기에서 침묵했던 윤도현도 8일 3안타를 몰아치면서 재시동을 걸었다.

퓨처스리그에서 두 번째 재정비 시간을 보낸 최원준도 주간 타율 0.393로 팀 내 타율 1위를 장식했다.

새로운 전력들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순위 싸움을 위한 전력을 갖춘 7위 KIA는 홈에서 2경기 차 4위인 삼성을 상대로 분위기 잇기에 나선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2승 5패로 열세지만 분위기는 KIA가 앞선다. 제임스 네일로 스타트를 끊는 마운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삼성은 원태인이 휴식차원에서, 백정현이 어깨 염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KIA는 이어 창원으로 가 3경기 차 뒤에 있는 8위 NC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지난 4월 30일 이후 오랜만에 만나는 상대인 데다 올 시즌 첫 창원 원정이다. 안타까운 관람객 사망사고 여파로 뒤늦게 창원을 찾게 됐다. '낯선' 상대·경기장인 만큼 첫 경기 집중력이 중요하다.

수비도 이번 주 KIA의 키워드다.

KIA는 지난주 7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쉬운 수비들로 승리를 내주기도 했고, 반대로 상대의 실책으로 끝내기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삼성은 지난주 1개의 실책만 기록하는 등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난적이다.

KIA가 '수비' 집중력을 발휘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안타 윤도현 동상동몽 44구 정해영

한화전 7-6 끝내기 승 견인

이길 것 같았던 윤도현과 이기고 싶었던 정해영, '끝내기 승리'를 향한 KIA 타이거즈의 마음은 하나였다.

KIA는 지난 8일 홈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즌 8차전에서 연장 10회 승부 끝에 7-6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전날 11회 승부에서 2-3패를 기록한 KIA는 이틀 연속 전개된 연장전에서 3루수 노시환의 송구 실책으로 승리를 가져왔다.

상대 '에이스' 폰세를 상대로 1회부터 안타를 기록하는 등 3안타 행진으로 승리에 힘을 보탠 윤도현은 경기가 끝난 뒤 "이길 것 같았다"며 승리 소감을 밝혔다.

윤도현은 "4경기에서 안타가 없어서 마음을 졸였다. 빗맞은 안타 하나만 나오라 했는데 첫 타석에서 나와서 마음 편하게 했다. 코치님이 '폰세 같은 선수에 강할 것 같다. 자신있게 하라'고 하셔서 자신 있게 했다"며 "게임할 때 이길 것 같은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재미있었다"고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윤도현

정해영

이날 9회와 10회를 책임지면서 승리를 기록한 '마무리' 정해영은 "진짜 이기고 싶었다. 이기고 싶어서 제가 10회 던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KIA는 지난 6일 두산전에 이어 7·8일 한화를 상대로 연달아 연장승부를 했다. 불펜진 소모도 많았고, 두 번의 연장전에서 모두 졌던 만큼 정해영은 승리를 위해 10회 등판을 자처했다.

44구 혼신투를 선보인 정해영은 "좋은 경험이다. 44개 던져본 기억이 꽤 오래됐는데 좋은 경험이다"며 "초반에는 이런 경기를 졌다. 지금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KIA의 상승세를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국대검도관, 국제검도대회서 선전

광주국대검도관 선수들이 국제 검도 대회에서 선전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오픈 한국사회인 검도대회'에서 광주국대검도관 배향화가 여자 청년부 결승전에서 김민재(박연정검도관)를 2-1 제압하며 1위를 차지했다.

남자 청년부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이 나왔다. 서울마곡선검도관을 상대로 선봉 안보현이 이범석에게 1-2 패, 중견 김우석이 오경택과 대결에서 2-0 승리하며 동점을 만들었고 주장 진명훈이 윤재평에게 1-2로 지면서 최종 스코어 1-2로 준우승을 기록했다.

여자 장년부 김정미와 남자 청년부 안보현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6개국 159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숍라이트 LPGA 클래식 준우승…김세영 3위

1988년생 베테랑 이일희가 12년 만에 찾아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우승 기회를 아깝게 놓쳤다.

이일희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시뷰 베이 코스(파71·6263야드)에서 열린 숍라이트 LPGA 클래식(총상금 175만달러)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199타를 기록한 이일희는 우승자 제니퍼 컵초(미국·15언더파 198타)에게 단 한 타 차로 밀려 준우승했다.

2010년 LPGA 투어에 데뷔해 2013년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첫 승을 신고한 이후엔 트로피를 추가하지 못한 이일희는 이번 대회 2라운드까지 컵초에게 한 타 앞선 단독 선두를 달리며 모처럼 우승 기회를 잡았으나 고비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레인우드 클래식 공동 9위 이후 거의 9년 만에 LPGA 투어 대회에서 톱10 성적을 냈다.

2014년 상금 랭킹 37위, 2015년에는 24위에 올랐으나 2016년 86위, 2017년 123위로 점차 멀어진 이일희는 어깨 부상도 겹치며 2018년 이후 정상적으로 투어 생활을 하지 못했다.

김세영은 이날 경기한 선수 중 가장 많은 6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12언더파 201타를 기록, 컵초와 이일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안산 양궁월드컵 은·동

한국, 혼성·남자 단체 등 금4

안산(광주은행)이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산은 지난 8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임시현(한국체대)과의 '집안싸움' 끝에 세트스코어 0-6 (27-28, 28-29, 29-31)으로 져 여자 개인전 은메달을 기록했다.

안산은 여자 단체 3위 결정전에서는 임시현, 강채영(현대모비스)과 호흡을 맞춰 독일 대표팀을 6-0(56-53 60-59 57-56)으로 꺾고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대표팀의 금메달 행진도 이어졌다.

임시현과 김우진(청주시청)은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독일을 6-2(39-38 38-40 37-35 41-37)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단체전에서는 김우진,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이 슛오프 끝에 독일을 5-4(57-53 60-58 59-60 59-60 28-26)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승연(한국체대), 심수인(창원시청), 소채원(현대모비스)으로 이뤄진 컴파운드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멕시코 대표팀을 241-233으로 이기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